

축산행정 확대개편 필요, 농무부 개칭도

—축발위, 상대적으로 낮은 축산 행정인력 확대 필요 역설—

축산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오봉국)는 지난 7월 16일 축산 관련단체 및 학회대표 연속모임을 가진 후 전축산관련업계 이름으로 현 농림수산부를 농무부로 개칭하는 한편 축산국의 직제를 축산정책심의실로 확대개편하는 등 현안 문제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본회를 포함 22개 축산단체와 8개 축산관련 학회 연명으로 '농림수산부직제 확대개편' 건의서를 제출했다.

동 추진위원회는 농업중 축산업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따른 축산행정 수요는 계속 세분화, 전문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축산행정 규모가 계속 축소 조정되고 있는 현실에 국제경쟁력에 당당하게 대응해 선진축산국 대열에 동참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기반조성과 축산수요 충족에 적합한 행정조직의 개편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현행 축산국을 축산정책심의실(차관보급)로 확대하고 축산정책심의관(국장급)과 수의정책심의관(국장급)을 두는 직제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해양부 신설에 따른 농림수산부의 명칭을 시대상황에 걸맞게 『농무부』로 개정하여 줄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축산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은 오봉국 위원장 인솔하에 농림수산부와 국회 상임위원회를 방문해 건의서 제출과 함

께 당위성을 역설하는 한편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각 단체 및 학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국내 농업생산규모는 경종업이 전체 농업 생산액중 180조원(74%), 임업이 8조7천억원(4%)에 비해 축산업은 53조원으로 22%의 생산액을 보이고 있으며, 행정력은 경종업이 2천2백30여명, 임업이 1천6백10여명, 축산업이 480여명으로 농업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행정력(인원)이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닭요리 강습회 실시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과 소비자 단체 협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닭고기 요리강습회가 지난 7월 19일(금)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주최, 본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서울의 영등포 등 서부지역 여성단체 간부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품인 닭고기 요리법 9종이 소개된 이날 닭고기 요리강습회는 본회 관계자의 닭고기 우수성 강의가 있은 후 한국식생활연구회 안승춘 부원장의 여름철 닭요리에 대한 소개와 실습이 이어졌는데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기는 지혜로 옛부터 조상들이 즐겨 요리해온 닭곰탕, 죽, 찜 외에 가정에서 즐기는 탕수, 냉채, 튀김, 닭밥 등이 소개되고 실습이 이어졌다.

참석한 여성단체 임원들은 백색육 닭고기의 우수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바쁜 사회생활 가운데 가족의 건강 보신을 위하여 많은 닭고기 요리를 접했다고 전하고 좀 더 간편하게 구입해 조리할 수 있는 닭고기 공급을 희망했다. 실습에 이용된 닭고기는 (주)하림에서 전량 지원하였다.

식용금지 육류 사료용

금년 7월부터 닭고기·쇠고기에 대한 유해성 잔류물질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농림수산부는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식용금지된 육류에 대해 사료용으로 사용한다고 7월 4일 밝혔다.

이에따라 특별관리대상 농장의 재출하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 실시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식용금지시킨 육류는 동물원 및 육골분 사료공장으로 보내 동물사료용으로 재활용키로 했다.

현재 전국의 동물원 및 육골분 사료공장 현황은 서울대공원을 포함 모두 11개소이다.

홍, 가금육 수입 증가

지난해 홍콩의 가금육 수입은 '94년 4십9만톤에서 6십8만8천톤으로 40.4%가 증가했다. 가장 앞선 수입국은 미국으로 4십7만8천톤('94년:3십3만4천톤), 다음이 브라질 4만2천톤('94년:3만7천톤), 네델란드 2만9천톤('94년:2만5천톤), 영국 2만5천톤('94년:1만톤)순이었다.

예고없는 정전 피해농기들 보상 촉구

최근 예고없는 정전사고로 인해 닭의 폐사 또는 산란을 저하 등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한국전력측의 보상 규정상 문제점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전남 나주와 순천, 충북 충주 등지의 닭 사육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7월18~19일 사이에 발생한 정전사고로 사육중인 닭이 무더기로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한전측에 요구했으나 자체보상을 내세운 한전측의 거부로 아직까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축 농민들은 한전측의 이같은 규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판정자가 한전 자신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정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전기 소비자인 양축농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축농민들은 따라서 정전 등

으로 인한 닭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농민과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한국전력 관계자, 농협직원 등 제 삼자가 폐사한 닭이나 사진등으로 객관적인 피해사실을 입증할 경우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전남 나주시 공상면 북룡리 양계단지에 4시간여 동안 전기가 끊겨 양계장 안에 설치된 환풍기, 선풍기, 급수기 등이 작동하지 않아 나영월씨(47)의 산란계 5천수를 비롯 단지 입주내에서 총 7천4백 마리가 폐사했다.

또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방한주씨(27) 농장에서는 18일과 19일 수온주가 35도까지 치솟은 데다 이틀간 3차례나 정전이 되는 바람에 3천여 마리가 폐사했다.

중계 또는 육계사육의 무창계사 설비가 점차 늘어나 이에대한 대책도 서둘러야 하겠다.

하림, 민방참여

주식회사 하림(대표 김홍국)이 전북지역 민영TV방송 사업권 선정경쟁에 뛰어들었다.

하림은 지난 7월22일 전주시 코아호텔에서 관련분야 교수 및 사회문화단체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지방민방설립을 위한 학술연구보고 및 추진상황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민방사업에 참여방침을 공식표명했다.

계육산업계에서는 최초로 지난해 5월 부터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안홍엽씨를 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방송사업을 추진하고, 소비자를 주주로 하는 등의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사료곡물 재고 증가

세계의 곡물수급은 95/96년도 말(올해 8월말)에는 사상 최저의 재고수준이 될 것이 확실시되

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농무성(USDA)은 96/97년도(96년 9월~97년8월)에 관한 최초의 수급예측을 발표하였다.

이 수급예측은 USDA가 올 가을 이후의 곡물 생산·소비에 대하여 세계 각지로 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앞으로 매월 경신되는 것으로서 세계 곡물매매관계자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예측에 의하면 올 가을의 수확을 포함한 96/97년도의 세계의 곡물생산을 전년대비 11.3% 증가한 8억7천7백만톤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중 최대의 생산국인 미국은 2억6천6백만톤(27% 증가)으로 기상조건이 악화되어 생산이 절감했던 전년도와 비교하여 옥수수를 중심으로 하여 대폭 생산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있다.

준육용계 사육 확산

최근들어 준육용계(일명 토종 닭)사육이 농가들 사이에 활발히 확산되면서 공급업체들의 영업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반 육용계에 비해 증체율, 사료요구율 면에서는 크게 떨어지는 준육용계는 생존율이 높고 육질이 좋아 소규모 식당이나 삼계탕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준육용계는 미원 마니커의 "고향닭", 체리부로 식품의 "싸쏘" 등 다양한 종류의 준육용계가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닭 능력검정을 통해 보급하는 준육용계의 균일성을 보장받으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육계 빠른 증체로 경골연골발육부전증 증가

육계의 품종개량에 따른 빠른 증체율로 경골연골발육부전증(TD)이 늘어나고 있어 육계 농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골연골발육부전증은 근위경골 성장판 중의 일부분에서 연골 조직이 경골조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며 성장판 연골이 심하게 비대되는 특징을 보이는 비전염성 질병으로 단시일내에 높은 증체율을 보이는 육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수의질병 전문가들에 따르면 육계의 품종개량으로 근육 발달에 따른 골조직의 상대적 감소로 이 질병이 발병하고 있으며 주로 4~7주령에 다발하나 빠를 경우 2주령에도 발생하며 주로 여름철에 다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경골연골발육부전증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TD 다발 품종이 아닌 병아리를 선별해 입추를 해야하며 적절한 사료공급으로 영양의 불균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계 휴약사료 생산감소

축산물 안전성 검사가 지난 7월1일부터 본격화돼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억제가 커다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휴약사료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한달간 육계 휴약사료 생산실적은 1백11톤으로 월간 생산량 14만7천39톤중 0.07%에 불과했고 지난해 5월의 휴약사료 생산물량인 2백61톤에

비해서는 57%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이처럼 휴약사료 생산이 줄고 있는 것은 일선 농가들의 휴약사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료업체들이 휴약사료의 생산을 위해 별도의 라인을 증설해야 하는 등 제조여건이 까다로와 이를 기피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대다수의 일선 육계농가들은 후기사료만 공급해도 항생제 잔류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정부 당국의 명확한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료값 인상 유보

-공정거래위, 담합여부 조사-

오는 8월 부터 사료값을 8% 올리려던 사료업체들의 인상 계획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 7월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용지를 생산하는 제지 3사의 담합행위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올 상반기(4월) 가격인상폭이 컸던(11.6% 인상) 배합사료 등 8개 품목에 대한 담합조사를 집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료업체들은 일단 사태추이를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 가격인상폭이 컸던 제품 가운데 담합의혹이 짙은 배합사료, 우유, 밀가루 등 8개 품목에 대해 담합조사

를 진행중'이라며 '이에 따라 업체들이 사료값을 올리려던 움직임이 주춤하고 있어 인상시기가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축통계 규모화 경향

농림수산부가 조사한 6월 현재 가축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닭은 1억2백57만9천수로 전년 동기보다 5.5%가 증가했고 특히 전분기보다는 23.4%가 늘어났다. 이중 육계는 전년 동기보다 9.6%가 증가한 4천7백59만1천수였으며 산란계는 2.7%가 증가한 4천7백53만9천수였으며 닭 사육가구수는 4%가 감소한 20만4천호로 조사됐다.

한육우와 젖소, 돼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육두수는 증가했으나 사육가구수는 감소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가축사육의 규모화가 가속화되어 소규모 사육농가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 닭고기 수입

러시아는 닭고기 공급원으로 브라질과 협상을 가졌다. 러시아 측의 수입회사 Prodintorg사는 닭고기 공급을 1,000\$/톤에 운송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브라질 측은 너무낮은 가격이어서 1,250\$/톤에 운송료 별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의 두번째로 큰 금생산회사인 Perdigao는 100만\$/800톤에 냉동닭고기를 팔았다.

Perdigao의 사장은 '이 계약에서 브라질은 5년동안 폐쇄되어 있던 시장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열사병, 육계 8만수 떼죽음

충주시 산천면에서 양계를 하고 있는 서성희씨의 양계장에서 7월17, 18일 양일간에 걸쳐 8만여 수의 육계가 폐사해 1억5천여만원(농가 잠정추산)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열사병이 그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양계장내에 설치돼 있는 환풍기의 불량 여부에 대한 시비로까지 번지고 있어 사건의 추이가 크게 주목된다. 서씨는 사건발생 직후 '질병으로 인한 폐사는 아니며 더위 등으로 인한 열사병으로 보인다'는 수의사의 확인 결과와 환풍기의 풍량 측정자료, 양계장의 온도 추이 변화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며 환풍기의 불량시공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양계장 내

의 최고온도가 38℃까지 올라가 육계의 직접적인 폐사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환풍기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씨는 이의 명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축산기술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서씨의 양계장은 서울에 소재한 환기시스템 전문업체인 H업체가 설계 및 시공을 담당, 지난해 4월에 계약하여 올 3월에 터널식 환기공법으로 8개 동을 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H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이 발생한 후인 19일에 환풍기 풍량을 측정해 결과 정상상태였다'고 말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타내는 등 출하직전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생원인은 주로 개량에 의한 급성장이나 펠릿사료와 같은 고영양성 사료급여로 빠른 증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불규칙적인 심장박동을 하던 닭들이 갑작스런 기계음에 놀라 심장박동정지로 폐사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육용종계 입추수수 증가

금년도 상반기에 입추한 육용종계는 2백16만2천6백90수로 전년 동기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육용종계의 입추수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종계의 생산성 저하로 생산잠재력보다 실제 병아리 생산수수가 감소해 안정적인 병아리 생산을 위해 수입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년도 1/4분기에 입추한 종계수수가 94년, 95년 동기대비 각각 31.5%, 53.4%나 급증한 1백17만8천6백수로 밝혀짐에 따라 비수기인 9월 이후에 접어들면서도 질병 등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병아리 생산잠재력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종계업체의 환우금지와 함께 노계도태를 통한 사육수수 조절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깔닥병, 육계농가 비상

속칭 깔닥병(SDS·일명 발랭이병)에 의한 육계농가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대한 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질병은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아 육종이나 사료연구, 환기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피해는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깔닥병은 총 발생건수중 70% 정도가 수컷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성장속도가 빠른 닭일수록 감수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질병은 빠르면 생후 5일령부터 발생을 시작해 일령이 높아질수록 발생율이 높아지며 생후 2~3주령에 가장 높은 발생율을

국내 도계기업계 최초!!!

● 정부 품질인증(EM마크)획득!

● 국산 신기술(KT마크)획득!

—태진기계는 정부에서도 품질을 보증합니다—

- ▲ 자동도체 이양기
- ▲ 자동도체 개복기
- ▲ 자동도체 가슴절개기
- ▲ 자동도체 기도 및 소낭제거기

- ▲ 자동도체 향문절단기
- ▲ 자동도체 내장적출기
- ▲ 자동도체 최종검사기
- ▲ 자동도체 중량선별기

- ✦ 하자보증기간 : 3년
- ✦ 즉각적 부품조달 및 A/S
- ✦ 국산기계구입자금대출 대상품목(3년가치 5년분할상환)



주식회사 태진기계

본사, 공장 :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 832
TEL : (0351)871-9001~4, FAX : (0351)871-9005

닭고기, 가공·외식분야에 투자 확대 필요

91년 11월 현재 '통합체계를 갖춘 업체는 16개 업체에 이르렀다. 당시의 상황에서 3~4개 업체는 이미 완전통합에 가깝고 나머지는 부분통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통합요소 가운데 사육과 도계부분의 통합정도가 가장 높았고, 종계, 가공, 외식부분의 통합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96년 8월 현재 통합체계를 갖춘 업체는 14개 업체로 그중 91년부터 현재까지 수직계열화를 계속 유지해온 업체는 4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지원의 미흡, 소비자 의식수준의 미비, 사료곡물가의 상승 등으로 계육산업이 그동안 걸어온 길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약 6~7개 업체가 완전통합에 가깝고 나머지 업체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91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수직통합체계의 완성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통합요소 가운데 사육과 도계는 91년과 같이 거의 높은 수준까지 이루어졌고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가공·외식부분의 발전이다. 91년 당시에는 가공·외식 분야가 취약한 상태였으나 현재는 가공산업의 발달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회의 바뀐 식생활 습관중 하나가 불규칙한 시간에 빨리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소비자의 특성으로 인해 패스트푸드 산업이 창업되고 번성하고 있는 까닭에 계열업체 가운데 가공·외식 분야를 등한시 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업체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소비패턴의 변화에서 잘 알 수 있다. 소비자의 고기에 대한 선호도는 편의성과 서비스를 중시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소비자는 데우거나 간단한 요리로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대부분 통닭 위주로 판매되었던 관행이 이러한 소비자 요구의 변화에 따라 오늘날 기업은 대부분 부위별로 절단되거나 쉽게 요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생산, 출하하고 있으며 바로 소비자의 편의성과 신속성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즉석요리 상태의 2차 가공품의 출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내 닭고기 소비시장의 20% 정도인 가공제품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다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점점 가공품에 대한 시설 및 기술, 자본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미, 육계생산 성장세

미국 육계의 생산량은 70년대 후반부터 계속하여 증가경향에 있지만 올해 들어서도 계속호조를 보이고 있다. 96년 5월 생산량은 전년 동월을 3.6% 상회하는 103만톤으로 올해 들어서 누계로 보면 504만톤으로 전년동기간에 비하여 8.5%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산지속의 배경으로는 육계생산의 수익성이 계속 양호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육계의 도매가격은 95년 7월

부터 전년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96년에 들어서도 1~5월의 평균가격은 전년동월을 10.1% 상회하였다. 이때문에 사료곡물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작년 여름부터 흑자를 보고 있다.

이와같이 도매가격이 좋은 이유는 수출 등의 수요가 계속하여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85년 이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96년 2월의 수출량은 전년을 56.9% 상회한 19만3천톤이었다.

3월은 거의 전년수준이었으나 1/4분기에서는 48만7천톤으로 전년을 23% 상회하였다.

이것을 수출국별로 보면 최대의 증가를 보인것이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전년동기간에 비하여 44.1%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1수당 중량의 증가도 생산량 확대의 한 요인이었다.

95년 1월~4월은 1수당 평균 2.12kg이었는데 96년 1월~4월에는 2.18kg으로 약 3% 증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최근 곡물가격의 상승에 의한 사료비용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사료효율이 높은 개량품종에 투입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점심 삼계탕으로

8월 7일 아틀란타 올림픽 출전 선수단 초청 오찬에서 청와대 점심으로는 이례적으로 칼국수 대신 삼계탕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 현재 일본과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식인 보양식품 삼계탕이 전국민의 사랑받는 요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수기 육계가격 휘청

초복에 kg당 1,400원을 나타내던 육계시세가 중복에는 생산비 이하인 kg당 900원, 말복을 일주일 앞둔 8월 5일 현재도 kg당 1,000원선의 보합세를 나타내고있어 계열주체 및 사육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94년 7월 1,530원 95년 1,082원과 비교했을때 가격하락의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같이 육계시세가 폭락세를 보이는 것은 출하량의 증가에 기인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4, 5월의 종계사료 생산량은 각각 28,831톤, 28,001톤으로 집계됐다. 이와같은 생산량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0.9%, 2.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병아리 생산잠재력의 증가가 예상됐다. 또한 할당관세에 의한 외국 종란 수입이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육계시세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계열주체의 계속되는 수매비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축물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수매를 할 수 없게 되자 육계시세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란수입의 영향은 8월10일 정도까지로 예상되고 있

어 그 이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계휴가를 맞아 많은 인파가 피서를 떠난 것도 소비부진의 커다란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말복을 지나 8월 말부터는 수해피해의 영향과 폐사율의 상승, 육성을 저하 등으로 공급량이 줄어들어 약간의 가격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의 종계사료 생산량은 전월 대비 20.8% 감소한 23,162톤으로 집계되어 8월말 회복세의 예상을 가능케하고 있다.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 창립총회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는 7월24일 충남 제일관광호텔 크리스탈룸에서 전국 종계·부화인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 설립목적은 양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협조를 기하고 특히 종계·부화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 향상시켜 종계·부화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종계·부화인들은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 회칙(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키고 초대

회장에 발기위원장을 맡아온 노태모(성현부회장)씨를 선임했다.

회원의 구성은 종계·부화업 등 록을 필한자로 종계·부화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협의회 사무실은 대한양계협회내에 두며 협의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 김우섭(강남부회장), 오무재(수일종계장), 박천석(신기농장) ●감사: 함경섭(대산농장), 민균홍(충청농장) ●사무국장: 이광초(경인축산), 이밖에 12명의 운영위원들이 있다.

일, 비축사료곡물 방출 검토

일본의 옥수수 최대수입선인 미국의 재고량이 과거에 비해 최저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일본 농무성은 최근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용 곡물의 정부비축 물량을 방출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7월말 이후 국제 곡물수급이 일본내 양축농가들에게 닥쳐올 수급 불안정을 예상해 사료용 곡물의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자국내 사료용 곡물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일본이 이번에 방출할 사료용 곡물은 10만톤 가량으로 이는 과거 방출량 가운데 최대량이 될것으로 나타났다.

깨끗하고
신선한 닭고기-



MIWON 미원마니카주식회사

인연이고 깨끗한

HAIMARROW

해마로치킨

Chicken



(주) TS해마로
TS HAIMARROW Co., Ltd.

냉동닭고기 수입 연기해야

96년 MMA물량 냉동닭고기 1만4백톤중 7월말 현재 약 60.5%인 6천3백톤이 수입되어 전반적으로 수입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입찰 당시 활발했던 업체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서서히 정체되어 마지못해 수입을 하는 등 수입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국제 사료곡물가격의 상승등으로 닭고기 생산비가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현재 국내 닭고기 시세의 하락과 맞물려 수입해야 타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때문에 MMA물량 수입을 포기할 움직임까지 보이

이고 있다.

앞으로 8월말까지 수입되어야 할 나머지 3천8백톤에 대해 국내 닭고기 소비부진으로 닭고기 값이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는데다 외국닭 수입으로 그나마 더큰 닭값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수입 기간 연장이 불가피 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더 이상의 닭고기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반적인 여론이다.

한편 수입되는 닭고기의 평균 가격은 kg당 1,592원으로 4월 평균 수입가격 1,373원보다 16% 상승된 가격이다.

PROCESSING)』 구입 문의가 계속이어지고 있어 본회에 비치, 위탁판매하고 있다.

동 책자는 도계운반, 도계공정, 부분육 또는 발공공정에 대한 소개와 닭고기 제품의 생산, 닭고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에 대한 접근, 장기간 보관방법 등 과학적인 자료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이 책은 도계장 운영자나 현장 기술자, 가금을 전공하는 축산학도, 닭고기 가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서울산업대학교 이영현 박사와 본회 김홍국 회장(하림 대표), 미국 미시시피주립대학 Chen박사가 공동집필하였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회로 문의바란다. (가격 7,400원 송금료 별도)

전화:(02)536-9855,6
팩스:(02)595-6028

영육농산 외식산업진출

영육농산(대표이사 김태웅)이 자체 브랜드인 『영가』에 이어 토마토&오니온 1호점을 개점, 외식산업 진출을 본격화 한다.

일본 토마토 앤드 오니온(TOMATO & ONION)과 제휴, 국내외식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서두르고 있는 영육농산은 이번 분당점 오픈을 계기로 점포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큰 부담없이 저렴한 가격에 가족단위의 외식을 즐길 수 있으며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살린 것이 T & O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포크 커트렛, 주시 햄버거, 스테이크, 커트 스테이크 등 닭고기 요리외에도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 주소:경기도 용인군 수지읍 죽전리 499,826번지
- 전화:0331-263-0606

"가금가공학" 위탁판매

본지 5월호에 소개되었던 『가금가공학 (POULTRY

닭고기 우수성 라디오 광고


KBS - 2R

오후의 대행진

15:00~15:30

에 이 비 안

대한양계협회 능력검정 '94, '95 2년 연속 1위!
에이비안은 육계농장계열주체 에 더 많은 이익을 드립니다.

 (주)중원농장

영업부 TEL.(0417)567-7792, FAX(0417)554-0771

화이트 미트의 시대!

KS닭고기회사

하림이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
(주)하림
HALIM & CO., LTD.